

제례의식의 인지도 조사연구

김종균 · 김정미[†] · 장성현

세종대학교 조리외식경영학과

Research on the Recognition of the Ritual Ceremony

Jong-Goon Kim, Jeong-Mee Kim[†] and Seonghyun Chang

Department of Culinary and Foodservice Management, Graduate School of Sejong University, Seoul, Korea

Abstract

This research was performed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rituals and to establish the desirable ritual culture. The recognition of the ritual culture was investigated by the general environmental factors such as gender, age, religion and education background. The rituals were generally recognized as positive. Some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shown according to religion, gender and residential area. To succeed the tradition of the preparation and the table-setting of ritual foods and to conduct the rituals by the descendants were recognized relatively high by the Buddhists and males living in Gyeongsangbuk-do. The degree of recognition of the method of table-setting of ritual foods was higher if one was married and older, with Buddhism and the oldest daughter-in-law in a family. As above, the culture of Korean rituals showed some differences according to the general environment and regions of the individual. The reason why regional differences were shown high was mainly because tradition and conservatism were maintained according to the unique regional thought and natural environment rather than impacts of the changes of times. That some differences were shown according to general environmental factors suggested that the traditional ritual culture was gradually changing according to the environmental changes in the modern times. Also, the recognition on the ritual culture were identified through investigations by general environmental factors such as gender, age, religion and education background.

Key words: ritual ceremony, recognition, general characteristics, Korean ritual.

I. 서 론

제사 양식은 상고시대에는 자연신에 대한 제례가 있었고, 삼국시대에 들어와서는 조상에 대한 제례로 발전하기 시작하였으며, 고려시대에 와서는 제례에 관한 법을 역사상 최초로 제정하였으며, 고려말기에는 주자가례의 영향으로 제례가 유교의식으로 전환되기 시작하였다. 그 후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유교식에 의한 제례가 더욱 확고히 정착되었다(안혜숙 1989, 이종국 1975, 이길표 1975, 윤서석 1986). 그러나 근래에 와서는 기독교가 활발히 유입되고 시대변화에 따라서 의식구조변화도 다양해졌으며 도시화, 산업화, 근대화

크게 진행됨에 따라 가족단위의 변동으로 인해 가족구조, 가족의 기능, 가족생활에 대한 태도 및 가치관의 변화가 불가피하게 야기되었다. 지금의 제례는 그 예를 말하는 학자마다 달리 하고 있으며, 가가례라고 할만큼 가문마다 약간씩의 특색을 가지면서 발전, 변모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이수는 1981). 이는 제사 음식의 발달이 자연환경과 같은 지역적 특성뿐 아니라 집례자의 주관과 같은 인문적 상황에도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진설방식은 각 가문마다 차이가 있어 일률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으나 대체적인 형식은 다음과 같다. 제상 앞에서 제 5줄에 과일, 제 4줄에 찬, 제 3줄에 탕, 제 2줄에 적, 제 1줄에 반, 갱의 순서로 진설하며 촛대는 양쪽에 떡은 동쪽에 진설하고 면은 서쪽에 진설한다. 향로, 향합, 모사기, 축판, 제주를 준비한 후 제사를 시작한다. 고비각설(考毗各設)은 남자조

[†]Corresponding author : Tel. 02-3408-3318, Fax. 02-416-8241, E-mail: sjmkim@hotmail.com

상과 여자조상의 상을 따로 차리는 것이고 고비합설(考妣合設)은 남자조상과 여자조상을 한 상에 차리는 것이다.

제 5열은 과실이나 조과(造菓)를 놓는 줄인데 지방과 가문에 따라 홍동백서(紅東白西) 또는 조율시이(棗栗柿梨), 조율이시(棗栗梨柿)로 진설하며 맨 앞줄은 과실과 조과의 줄로 과실로는 기본4과(대추, 밤, 배, 감)인 목과를 서쪽부터 차례로 진설하고 다음에 기본4과 외의 목과(木果), 만과(蔓果), 초과(草果), 조과(造果)의 순으로 진설하기도 한다. 목과(木果)에는 은행, 앵두, 사과, 석류, 바나나, 밀감, 파인애플 등 나무에 달린 과실이고, 만과(蔓果)에는 포도, 머루, 다래, 토마토 등이 있는데 줄기에 달려 있는 과실이고, 초과(草果)에는 딸기, 참외, 수박 등 땅위에 붙은 과실이다. 조과(造果)는 손으로 만든 과자류를 말하는데 유과, 전과, 약과, 다식, 엿 등이 있으며 조과의 으뜸은 유과로써 최상위에 놓기도 한다.

제 4열은 서포동혜(西脯東醢)라 하며 성균관에서는 좌포우혜라는 말 대신에 서포동혜라는 용어를 쓰기로 하였다. 나물류 즉 침채(沈菜), 청장(淸장), 숙채(熟菜)는 가운데에 진설한다. 제 3열은 탕(湯)을 진설하는 줄로써 관작 여하에 따라 3탕, 5탕을 써 왔다. 어탕은 동쪽에 육탕은 서쪽으로, 소탕(素湯)은 가운데 진설한다. 제 2열은 적(炙)과 전(煎)을 진설하는 줄로써 계적, 어적, 조기적, 생선포와 같이 등과 배가 있는 제수는 바르게 놓을 때는 등이 위로 가고, 누어 놓을 때는 배가 신위 쪽으로 가게 놓는다(김향숙, 황춘선 1991). 그러나, 지방과 가문에 따라 등이 아래로 가고 배가 위로 가게 누어 놓는 경우도 있다. 또 인모우(鱗毛羽: 비늘, 털, 날개)의 차례로 한꺼번에 제물을 진설하는 경우는 밑에 비늘이 있는 물고기를 피고 그 위에 털이 있는 쇠고기, 돼지고기 등을 피고 가장 위에 날개가 있는 닭 등을 피어 진설한다. 제1열은 반과 갠을 놓는 줄로서 반은 서쪽에 갠은 동쪽에 놓고 편은 동쪽에 놓고 면은 서쪽에 놓는다. 잔서초동(盞西醋東)은 술잔은 서쪽에 놓고 초접은 동쪽에 놓아야 하고, 천산양수(天産陽數)는 하늘에서 나는 것으로 홀수로 진설하여야 하며, 지산음수(地産陰數)는 땅에서 나는 것으로 홀수로 진설하여야 한다(이수는 1981, 윤숙경 1996, 박경란 2000, 최병화 2002).

우리 고유의 제례는 오늘날 생활양식의 변화, 가족제도의 변화 등 시대변천에 따라 달라지고 있으므로 근래의 급격한 사회 환경 변화 속에서 제례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기도와 경상북도 지역을 중심으로 제례 의식을 비교 연구하여 현대 제례 의식의 변화에 따른 제례 문화양상을 조사하여 바람직한 제례문화를 정립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서울과 부천의 경기 지역, 안동과 포항에 거주하는 경북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2002년 5월 26일에서 2002년 8월 4일까지 실시하였다.

조사방법은 각 지역의 요리학원, 관공서, 대학교를 선정하여 20대에서 40대의 남·여를 중심으로 500부를 배부하여 326부를 회수하였다(회수율 65%). 통계처리에 미흡한 자료를 제외한 289부를 자료로 이용하였다.

2. 조사내용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선행연구를 참고로 하여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설문지는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10문항과 제례에 대한 의식 8문항으로 총 18문항을 구성하였다.

1) 일반사항

연구대상자의 지역, 성별, 연령, 종교, 학력, 수입, 만이여부, 결혼 여부, 만며느리 여부, 가족 형태를 조사하였다.

2) 제례에 대한 의식

제례에 대한 연구대상자의 의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제사 음식 상차림 전통의 전수에 대한 의식, 후손들도 제사를 모심에 대한 의식, 제사음식의 종류에 대한 흥미정도, 제사상의 진설형식에 대한 인지정도, 제사음식의 조리법에 대한 인지정도, 제사의 의미에 대한 의식, 제사에서 얼 모심이나 축문 등의 제사의 절차에 대한 인지정도, 제사 대행업체의 이용에 대한 의식을 조사하였다.

3.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PSS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기법으로는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거주지역에 따른 제례의식에 대한 유의성 검증을 위해 t-test 검증, One-way ANOVA(일원변량분석), χ^2 (Chi-square) 검증과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조사대상자의 일반 사항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성별로는 여자가 65.1%로, 남자 34.9%이었다. 연령별로는 40대 이상이 35.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30대 34.6%, 20대 이하 29.8% 순서로 나타났다. 종교별로는 종교가 있는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Variable		Gyeonggi	Gyeongbuk	N (%)
Gender	Male	39 (40.2)	62 (32.3)	101 (34.9)
	Female	58 (59.8)	130 (67.7)	188 (65.1)
Age	20~29	60 (61.9)	26 (13.5)	86 (29.8)
	30~39	11 (11.3)	89 (46.4)	100 (34.6)
	Over 40	26 (26.8)	77 (40.1)	103 (35.6)
Religion	Buddhism	23 (23.7)	79 (41.1)	102 (35.3)
	Christian	23 (23.7)	18 (9.4)	41 (14.2)
	None	40 (41.3)	75 (39.1)	115 (39.8)
	The others	11 (11.3)	20 (10.4)	31 (10.7)
Education	High school	56 (57.7)	98 (51.0)	154 (53.3)
	College or higher	41 (42.3)	94 (49.0)	135 (46.7)
Income level (10,000 won)	<100	61 (62.9)	48 (25.0)	109 (37.7)
	100~200	20 (20.6)	94 (49.0)	114 (39.4)
	>200	16 (16.5)	50 (26.0)	66 (22.8)
Firstborn	Yes	48 (49.5)	74 (38.5)	122 (42.2)
	No	49 (50.5)	118 (61.5)	167 (57.8)
Marriage status	Married	38 (39.2)	164 (85.4)	202 (69.9)
	Single	59 (60.8)	28 (14.6)	87 (30.1)
Daughter-in-law	First	12 (40.0)	41 (35.7)	53 (36.6)
	The others	18 (60.0)	74 (64.3)	92 (63.4)
Family size	Small family	86 (88.7)	155 (80.7)	241 (83.4)
	Large family	11 (11.3)	37 (19.3)	48 (16.6)

경우가 60.2%, 없는 경우는 39.8%이었고, 종교별로는 불교가 35.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기독교 14.2%, 기타 10.7% 순서를 차지하였다.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가 53.3%, 대졸 이상이 46.7%이었다. 수입별로는 101~200만원이 39.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100만원 이하 37.7%, 201만원 이상 22.8% 순서로 나타났다. 장남 혹은 장녀 여부별로는 장남 혹은 장녀가 아닌 경우가 57.8%로, 딸이 42.2%보다 높은 분포를 보였다. 결혼 여부별로는 기혼이 69.9%, 미혼은 30.1%이었고, 며느리 순위별로는 둘째 며느리 이하는 63.4%로, 맏며느리 36.6%보다 많았다. 가족형태별로는 핵가족이 83.4%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확대가족은 16.6%로 나타났다.

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을 송원경(1999)과 장은주(1995)의 연구결과와 비교해 보면 경기지역과 경북지역은 40대가 가장 많았고 도시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기독교인이 많은 편이었는데, 본 조사에서는 경북지역은 30대가 가장 많았고 경기지역은 20대가 가장 많았으며, 경기지역은 불교와 기독교가 같은 비율을 나타내고 무교가 가장 많았다. 경북지역은 불교가 가장 많고 무교의 순서로 나타났다. 가족형태는

경기지역과 경북지역 모두 핵가족이 높게 나타났고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은 다른 연구의 대상자와 크게 다른 양상을 보이지는 않았다.

2. 제례의식

1) 제사의 의미

제사의 의미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Table 2와 같이 경기지역은 조상에 대한 효도가 49.5%로 응답자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옛날부터 내려오는 풍습이기에 27.9%, 조상을 잘 섬겼을 때 후손이 복을 받는다 26.8%, 집안의 친목을 더욱 도모할 수 있다 19.6%, 가문의 전통이므로 그대로 계승해야 한다는 9.3%의 순서로 나타났다. 남이 하므로 어쩔 수 없다는 응답과 종교의식과 후손이 나의 제사를 지내 줄 것을 원한다는 응답은 아주 적게 나타났다. 안동지역에서는 조상에 대한 효도차원이 34.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옛날부터 내려오는 풍습이기에 28.6%, 조상을 잘 섬겼을 때 후손이 복을 받는다 21.9%, 가문의 전통이므로 그대로 계승해야 한다는 12.5%, 집안의 친목을 더욱 도모할 수 있다 9.9%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사후에 자손이 제사를 지내줄 것을 원한다는 1.6%로 경기지역의 0%에 비하여 많은 응답을 보였고, 남들이 다 하므로 어쩔 수 없어서 1.0%와 종교의식 차원에서 1.0%로 매우 적은 분포를 보였다. 따라서 경기 지역은 경북 지역에 비해 조상에 대한 효도 차원에서 제사를 드리는 경우가 많았고, 이에 반해 경북 지역은 경기 지역에 비해 집안의 전통 때문에 제사를 지내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경기 지역은 경북 지역에 비해 집안의 친목 도모 차원에서 제사를 지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Recognition of the ritual ceremony Number (%)

Variable	Gyeonggi (N=97)		Gyeongbuk (N=192)	
	Frequency (number)	Percent (%)	Frequency (number)	Percent (%)
filial piety	48	49.5	67	34.9
a tradition to one's family	9	9.3	24	12.5
to observe a custom	27	27.9	55	28.6
no willing	4	4.1	2	1.0
religious ceremony	3	3.1	2	1.0
to bless	26	26.8	42	21.9
for friendship	19	19.6	19	9.9
for my own memorial service	-	-	3	1.6

지역별 제례의식을 조사한 연구(박경란 2000)에서 후손에게 제수제승이 필요하다는 의식은 산간지역이 도시와 해안 지역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음을 보고하였다. 또 경건, 정성, 존경을 표하는 의식이 가장 높은 편이었고, 사후에 제사를 받기를 원하는 의식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것은 본 연구에서도 같은 양상을 보였는데 이와 같은 현상은 정보화 사회로 발전하면서 사후 세상에 대한 의미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현대인의 사고방식의 변화라고 보여진다.

2) 제사의 절차에 대한 인지 정도

제사에서 열 모심이나 축문 등 제사 절차에 대한 인지 정도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3과 같이 전체 평균이 2.51로, 제사 절차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지역 거주자가 경기지역 거주자보다 제사에서 열 모심이나 축문 등 제사 절차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남자가 여

Table 3. Recognition on the ritual procedure

	Variable	N	Mean	t(F)
Region	Gyeonggi	97	2.38	-1.63
	Gyeongbuk	192	2.57	
Gender	Male	101	2.73	3.30**
	Female	188	2.38	
Age	20~29	86	2.24	8.22***
	30~39	100	2.48	
	Over 40	103	2.75	
Religion	Buddhism	102	2.74	7.90***
	Christian	41	2.00	
	None	115	2.44	
	The others	31	2.65	
Education	High school	154	2.53	0.57
	College or higher	135	2.47	
Income level (10,000won)	<100	109	2.44	1.06
	100~200	114	2.49	
	>200	66	2.64	
Firstborn	Yes	122	2.67	2.81**
	No	167	2.38	
Marriage Status	Married	202	2.61	3.12**
	Single	87	2.26	
Daughter-in-law	First	53	2.57	0.68
	The others	92	2.47	
Family size	Small family	241	2.44	-2.70**
	Large family	48	2.81	
	Total	289	2.51	

** p<.01, *** p<.001.

· 5 Score of Likerts : 1-never, 2-a little, 3-medium, 4-well, 5-very well

자보다 제사 절차에 대해 잘 알고 있었으며,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3.30, p<0.001$). 연령별로는 연령이 많을수록 제사 절차에 대해 잘 알고 있었으며,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8.22, p<0.001$).

또한 불교 신자가 제사 절차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었고, 기독교 신자가 다른 종교인보다 제사에서 열 모심이나 축문 등 제사 절차에 대해 잘 알지 못하였으며, 종교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7.90, p<0.001$).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가 대졸 이상보다 제사 절차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수입이 많을수록 제사 절차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만이 여부별로는 만이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제사 절차에 대해 잘 알고 있었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2.81, p<0.05$). 결혼 여부별로는 기혼자가 미혼보다 제사 절차에 대해 잘 알고 있었으며, 결혼 여부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t=3.12, p<0.01$). 며느리 순위별로는 맏며느리가 둘째 이하 며느리보다 제사 절차에 대해 잘 알고 있었으며, 확대가족이 핵가족보다 제사절차를 잘 알고 있었고 가족형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2.70, p<0.01$).

이상과 같이 제사에서 열 모심이나 축문 등 제사 절차에 대해 전체적으로 잘 알고 있지 못하였으며, 성별과 연령, 만이 여부, 결혼 여부, 그리고 가족형태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제사에 직접 참여한 경험에 따라 제사절차를 알고 있는 정도의 차이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3) 제사음식 상차림의 전통 전수에 대한 의식

제사음식 상차림의 전통 전수에 대한 의식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4와 같이 전체 평균이 3.45로, 제사음식 상차림은 전통을 그대로 전수해야 한다는 의식에 대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경기와 경북지역이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성별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제사음식의 상차림은 전통을 그대로 전수해야 한다고 인식하였으나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연령별로는 20대 이하와 40대 이상이 30대보다 제사음식의 상차림은 전통을 그대로 전수해야 한다고 인식하였고, 종교별로는 불교 신자가 제사음식 상차림의 전통 전수에 대해 가장 높은 인식을 보였다. 기독교 신자는 다른 종교인보다 제사음식 상차림의 전통 전수에 대해 낮은 인식을 보였으며, 종교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7.24, p<0.001$).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가 대졸 이상보다 제사음식의 상차림은 전통을 그대로 전수해야 한다고 인식하였으며, 수입과만이 여부별로는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결혼 여부별로는 기혼자가 미혼자보다 제사음식의 상차림은 전통을 그대로 전수해야 한다고 인식하였으며, 며느리 순위별로는 둘째

Table 4. Awareness on the traditional handing down of ritual table preparation

	Variable	N	Mean	t(F)
Region	Gyeonggi	97	3.44	-0.03
	Gyeongbuk	192	3.45	
Gender	Males	101	3.51	0.79
	Females	188	3.41	
Age	20~29	86	3.49	0.29
	30~39	100	3.38	
	Over 40	103	3.48	
Religion	buddhism	102	3.66	7.24***
	Christian	41	2.78	
	None	115	3.52	
	The others	31	3.35	
Education	High school	154	3.53	1.46
	College or higher	135	3.35	
Income level (10,000)	<100	109	3.42	0.05
	100~200	114	3.46	
	> 200	66	3.45	
Firstborn	Yes	122	3.47	0.28
	No	167	3.43	
Marriage status	Married	202	3.50	1.29
	Single	87	3.32	
Daughter-in-law	First	53	3.25	-1.79
	The others	92	3.59	
Family size	Small family	241	3.45	0.06
	Large family	48	3.44	
Total		289	3.45	

*** p<.001.

· 5 Score of Likerts : 1-never, 2-a little, 3-medium, 4-well, 5-very well

며느리 이하가 맏며느리보다 제사음식의 상차림은 전통을 그대로 전수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가족형태별로는 핵가족과 확대가족이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상과 같이 제사음식의 상차림은 전통을 그대로 전수해야 한다고 인식하였으며, 종교가 불교인 경우에 다른 종교인보다 제사음식의 상차림은 전통을 그대로 전수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제례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한 연구(임옥재 1998, 이길표 1982, 이영미 1987, 허성미 1987, 김인옥 1997) 결과를 보면 제례의식은 연령이 낮고, 종교가 기독교일 경우, 학력이 낮을수록, 가족형태가 핵가족일 때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와 종합해 볼 때 제례의식은 다른 일반요인의 영향도 받지만 종교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 후손들의 제사 계승에 대한 의식

후손들도 제사를 반드시 모셔야 한다는 생각에 대한 의식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5와 같이 전체 평균이 3.17로, 후손들의 제사 모심에 대해에 대해 그다지 높은 인식을 보이지는 않았다.

경북지역 거주자가 경기지역 거주자보다 후손들도 제사를 모셔야 한다고 인식하였고, 남자가 여자보다 후손들도 제사를 모셔야 한다고 인식하였으며,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3.44, p<0.01$). 연령별로는 20대 이하와 40대 이상이 30대보다 후손들도 제사를 모셔야 한다고 인식하였고 불교 신자가 후손들의 제사 모심에 대해 가장 높은 인식을 보였다. 기독교 신자는 다른 종교인보다 후손들의 제사 모심에 대해 낮은 인식을 보였으며, 종교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

Table 5. Descendants' agreement on the ritual serving

	Variable	N	Mean	t(F)
Region	Gyeonggi	97	3.05	-1.28
	Gyeongbuk	192	3.23	
Gender	Male	101	3.49	3.44**
	Female	188	3.01	
Age	20~29	86	3.22	0.31
	30~39	100	3.10	
	Over 40	103	3.20	
Religion	Buddhism	102	3.38	10.34***
	Christian	41	2.32	
	None	115	3.32	
	The others	31	3.06	
Education	High school	154	3.15	-0.37
	College or higher	135	3.20	
Income level (10,000)	<100	109	3.18	0.74
	100~200	114	3.25	
	> 200	66	3.03	
Firstborn	Yes	122	3.26	1.13
	No	167	3.11	
Marriage status	Married	202	3.20	0.67
	Single	87	3.10	
Daughter-in-law	First	53	3.06	0.07
	The others	92	3.04	
Family size	Small family	241	3.15	-0.64
	Large family	48	3.27	
Total		289	3.17	

** p<.01, *** p<.001.

· 5 Score of Likerts : 1-never, 2-a little, 3-medium, 4-well, 5-the same mind.

였다($F=10.34, p<0.001$). 또한 대졸 이상이 고졸 이하보다 후손들도 제사를 모셔야 한다고 인식하였고, 수입별로는 101~200만원인 경우 후손들의 제사 모심에 대해 가장 높은 인식을 보였고, 201만원 이상은 100만원 이하보다 후손들의 제사 모심에 대해 낮은 인식을 보였다. 만이 여부별로는 만이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후손들도 제사를 모셔야 한다고 인식하였으며 기혼자가 미혼자보다 후손들도 제사를 모셔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결혼 여부나 며느리 순위별로는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가족형태별로는 확대가족이 핵가족보다 후손들도 제사를 모셔야 한다고 인식하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상과 같이 후손들의 제사 모심에 대해 그다지 높은 인식을 보이지 않았으며, 성별이 남자일 경우와 종교가 불교인 경우 다른 사람들보다 후손들도 제사를 모셔야 한다고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박경란(2000)의 연구에서는 후손에게 제수계승이 필요하다는 의식은 산간지역이 도시와 해안지역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고, 1987년 주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이영미 1987)에서는 사후 제사를 원한다는 응답이 73.1%였고, 경기지역 주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박수정 1988)에서는 43%였다. 이러한 결과를 비추어 볼 때 최근 들어 후손들의 제사 계승에 대한 필요성을 점점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5) 제사음식 종류에 대한 흥미도

제사음식의 종류에 대한 흥미 정도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6과 같이 전체 평균이 3.08로, 제사음식의 종류에 대한 흥미도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지역 거주자가 경기지역 거주자보다 제사음식의 종류에 대한 흥미도가 높았으며, 지역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2.47, p<0.05$). 성별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제사음식의 종류에 대한 흥미도가 높았으며,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2.05, p<0.05$). 연령별로는 30대 이상이 20대 이하보다 제사음식의 종류에 대한 흥미도가 높았으며 불교 신자가 제사음식의 종류에 대한 흥미도가 가장 높았고, 기독교 신자는 다른 종교인보다 제사음식의 종류에 대한 흥미도가 낮았으며, 종교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7.78, p<0.001$).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가 대졸 이상보다 제사음식의 종류에 대한 흥미도가 높았고, 수입별로는 201만원 이상인 경우 제사음식의 종류에 대한 흥미도가 가장 높았다. 또한 101~200만원의 경우가 100만원 이하보다 제사음식의 종류에 대한 흥미도가 낮았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만이 여부별로는 만이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제사음식의 종류에 대한 흥미도가 높았고 기혼자가 미혼자보다 제사음식의 종류에 대한 흥미도가 높았다. 며느리 순

Table 6. Degree of interest in the kinds of ritual food

Variable	N	Mean	t(F)	
Region	Gyeonggi	97	2.90	2.47*
	Gyeongbuk	192	3.18	
Gender	Males	101	3.24	2.05*
	Females	188	3.00	
Age	20~29	86	2.95	1.22
	30~39	100	3.14	
	Over 40	103	3.14	
Religion	Buddhism	102	3.30	7.78***
	Christian	41	2.51	
	None	115	3.10	
	The others	31	3.03	
Education	High school	154	3.15	1.31
	College or higher	135	3.01	
Income level (10,000)	<100	109	3.10	1.24
	100~200	114	2.99	
	> 200	66	3.21	
Firstborn	Yes	122	3.16	1.15
	No	167	3.03	
Marriage status	Married	202	3.14	1.57
	Single	87	2.95	
Daughter-in-law	First	53	2.98	-0.41
	The others	92	3.04	
Family size	Small family	241	3.05	-1.21
	Large family	48	3.23	
Total	289	3.08		

* $p<0.05$, *** $p<0.001$.

· 5 Score of Likerts : 1-never, 2-a little, 3-medium, 4-well, 5-very much

위별로는 둘째 이하 며느리가 맏며느리보다 제사음식의 종류에 대한 흥미도가 높았고 확대가족이 핵가족보다 제사음식의 종류에 대한 흥미도가 높았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상과 같이 제사음식의 종류에 대한 흥미도가 그다지 높지 않았으며, 지역과 성별, 종교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이것은 제사를 중요하게 여기는 정도에 따라 흥미도가 다르게 나타났다고 여겨진다. 즉 경북지역은 경기지역보다 보수성이 강하고 전통성이 많이 남아있는 지역이므로 제사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제사음식의 종류에 대한 흥미도 또한 경기지역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본다. 그리고 여성보다는 남성이 전통을 지켜나가고자 하는 의식이 더 강하다고 여겨지며 종교가 불교일 경우도 타종교인에 비하여 전통에 대한 가치를 높

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6) 제사상의 음식배열 형식에 대한 인지 정도

제사의 음식배열 형식에 대한 인지도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7과 같이 전체 평균이 2.76으로, 제사의 음식배열 형식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 거주자가 경기지역 거주자보다 제사의 음식배열 형식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남자가 여자보다 제사의 음식배열 형식에 대해 잘 알고 있었으며,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5.27, p<0.001). 연령별로는 연령이 많을수록 제사의 음식배열 형식에 대해 더 잘 알고 있었으며,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11.43, p<0.001). 종교별로는 불

Table 7. Extent of recognition on the food arrangement type of the ritual table

	Variable	N	Mean	t(F)
Region	Gyeonggi	97	2.68	-1.02
	Gyeongbuk	192	2.81	
Gender	Males	101	3.14	5.27***
	Females	188	2.56	
Age	20~29	86	2.52	11.43***
	30~39	100	2.63	
	Over 40	103	3.10	
Religion	Buddhism	102	2.98	5.78**
	Christian	41	2.29	
	None	115	2.77	
	The others	31	2.68	
Education	High school	154	2.81	0.92
	College or higher	135	2.71	
Income level (10,000)	<100	109	2.66	1.69
	100~200	114	2.77	
	> 200	66	2.92	
Firstborn	Yes	122	2.96	3.10**
	No	167	2.62	
Marriage status	Married	202	2.88	3.18**
	Single	87	2.51	
Daughter-in-law	First	53	2.83	1.14
	The others	92	2.66	
Family size	Small family	241	2.69	-3.00**
	Large family	48	3.13	
Total		289	2.76	

** p<.01, *** p<.001.

· 5 Score of Likerts : 1-not known, 2-a little, 3-medium, 4-well, 5-very well

교 신자가 제사의 음식배열 형식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었고, 기독교 신자가 다른 종교인보다 제사의 음식배열 형식에 대해 알지 못하였으며, 종교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5.78, p<0.01). 또한 고졸 이하가 대졸 이상보다 제사의 음식배열 형식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수입별로는 수입이 많을수록 제사의 음식배열 형식에 대해 더 잘 알고 있었으나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만이 여부별로는 만이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제사의 음식배열 형식에 대해 잘 알고 있었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3.10, p<0.01). 한편 기혼자가 미혼자보다 제사의 음식배열 형식에 대해 잘 알고 있었으며, 결혼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3.18, p<0.01). 며느리 순위별로는 맏며느리가 둘째 이하 며느리보다 제사의 음식배열 형식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확대가족이 핵가족보다 제사의 음식배열 형식에 대해 잘 알고 있었으며, 가족형태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t=-3.00, p<0.01).

이상과 같이 제사의 음식배열 형식에 대해 그다지 잘 알고 있지 못하였으며, 성별과 연령, 종교, 만이 여부, 결혼 여부, 그리고 가족형태 변인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결과를 볼 때 제사에 참여하는 주체가 전통적으로 남자이며, 만이이기 때문에 진설방법에 대한 지식이 여자보다는 남자가, 장남일 경우에 더 높게 나타났다고 본다. 전통적 격식에 따른 제수의 진설은 시대 및 본인의 종교가 기독교인 경우, 며느리 순위가 낮을수록, 학력이 고졸이상인 경우, 소득이 낮을수록 낮게 나타났고, 연령, 직업, 가족형태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고 보고하였다 (박경란 2000).

7) 제사음식의 조리법에 대한 인지 정도

제사음식의 조리법에 대한 인지정도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8과 같이 전체 평균이 3.17로, 제사음식의 종류와 조리법에 대해 그다지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북지역 거주자가 경기지역 거주자보다 제사음식의 종류와 조리법에 대한 인지도가 높았고 여자가 남자보다 제사음식의 종류와 조리법에 대한 인지도가 높았으며,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 -2.63, p<0.01). 30대가 제사음식의 종류와 조리법에 대한 인지도가 가장 높았고, 20대 이하가 40대 이상보다 제사음식의 종류와 조리법에 대한 인지도가 낮았으며,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6.95, p<0.01). 또한 불교 신자가 제사음식의 종류와 조리법에 대한 인지도가 가장 높았고, 기독교 신자는 다른 종교인보다 제사음식의 종류와 조리법에 대한 인지도가 낮았으며, 종교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 5.42, p<0.01).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가 대졸 이상보다 제사음식의 종류와 조리법에 대한 인

Table 8. Extent of recognition on the kinds of ritual food and recipes

Variable		N	Mean	t(F)
Region	Gyeonggi	97	3.03	-1.95
	Gyeongbuk	192	3.23	
Gender	Males	101	2.99	-2.63**
	Females	188	3.26	
Age	20~29	86	2.90	6.95**
	30~39	100	3.33	
	Over 40	103	3.23	
Religion	Buddhism	102	3.41	5.42**
	Christian	41	2.90	
	None	115	3.03	
	The others	31	3.19	
Education	High school	154	3.21	1.04
	College or higher	135	3.11	
Income level (10,000)	<100	109	3.06	1.54
	100~200	114	3.23	
	> 200	66	3.24	
Firstborn	Yes	122	3.12	-0.74
	No	167	3.20	
Marriage status	Married	202	3.30	4.14***
	Single	87	2.86	
Daughter-in-law	First	53	3.36	0.08
	The others	92	3.35	
Family size	Small family	241	3.12	-1.89
	Large family	48	3.38	
Total		289	3.17	

** p<.01, *** p<.001.

· 5 Score of Likerts : 1-not known, 2-a little, 3-medium, 4-well, 5-very well

지도가 높았으며 수입별로는 101만원 이상이 100만원 이하보다 제사음식의 종류와 조리법에 대한 인지도가 높았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한편 기혼자가 미혼자보다 제사음식의 종류와 조리법에 대한 인지도가 높았으며, 결혼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4.14, p<0.001$). 며느리 순위별로는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확대가족이 핵가족보다 제사음식의 종류와 조리법에 대한 인지도가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이상과 같이 제사음식의 종류와 조리법에 대해 그다지 알지 못하였으며, 성별과 연령, 종교, 그리고 결혼 여부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8) 제사음식 대행업에 대한 인식

제사음식 대행업에 대한 의식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9와

Table 9. Awareness on the ritual food agency business

Variable		N	Mean	t(F)
Region	Gyeonggi	97	2.74	0.77
	Gyeongbuk	192	2.64	
Gender	Males	101	2.41	-3.20**
	Females	188	2.82	
Age	20~29	86	2.58	1.65
	30~39	100	2.83	
	Over 40	103	2.60	
Religion	Buddhism	102	2.59	1.43
	Christian	41	2.95	
	None	115	2.62	
	The others	31	2.81	
Education	High school	154	2.53	-2.57*
	College or higher	135	2.84	
Income level (10,000)	<100	109	2.54	1.43
	100~200	114	2.74	
	> 200	66	2.79	
Firstborn	Yes	122	2.65	-0.37
	No	167	2.69	
Marriage status	Married	202	2.66	-0.28
	Single	87	2.70	
Daughter-in-law	First	53	2.74	-0.75
	The others	92	2.87	
Family size	Small family	241	2.71	1.10
	Large family	48	2.52	
Total		289	2.67	

** p<.01, *** p<.001.

· 5 Score of Likerts : 1-not known, 2-a little, 3-medium, 4-well, 5-very well

같이 전체 평균이 2.67로, 제사음식 대행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지역 거주자가 경북지역 거주자보다 제사음식 대행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였고 여자가 남자보다 제사음식 대행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였으며,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3.20, p<0.01$). 연령별로는 30대가 20대 이하와 40대 이상보다 제사음식 대행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였으며 기독교 신자가 제사음식 대행업에 대해 가장 긍정적으로 인식하였고, 불교 신자가 다른 종교인보다 제사음식 대행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지 않았다.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이 고졸 이하보다 제사음식 대행업체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였으며, 학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2.57, p<0.05$). 또한 수입이 많을수록 제사음식 대행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였고 말이 여부

별로는 만이가 아닌 경우에 만이 여부보다 제사음식 대행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였으나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미혼자는 기혼자보다 제사음식 대행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였고 며느리 순위별로는 둘째 이하 며느리가 맏며느리보다 제사음식 대행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가족형태별로는 핵가족이 확대가족보다 제사음식의 대행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상과 같이 제사음식의 대행업에 대해 그다지 긍정적으로 인식하지 않았으며, 여자가 남자보다 제사음식의 대행업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혼례와 폐백음식을 대행하는 것은 일반화되었으며 거부감이 적으나, 제사음식 장만은 가정에서 마련해야 한다는 의식이 지역을 막론하고 아직은 강하게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효사상과 함께 제사의 의미를 조사한 결과 조상에 대한 효도차원에서 제사를 지내는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과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IV. 요약

본 연구에서는 현대 제례문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서울, 부천과 안동 지역을 중심으로 제례에 대한 의식에 관하여 조사하였고, 성별, 연령, 종교, 학력 등 일반 환경요인이 제례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여 현대 제례의식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하였다.

제례에 대한 의식은 대체로 긍정적인 경향이였다. 종교, 성별, 거주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종교가 불교일 경우와 남성의 경우 그리고 거주지역이 경북지역인 경우 제사음식의 상차림에 대한 전통전수와 후손들도 제사를 모셔야 한다는 의식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제사상의 진설방법과 제사에서 축문 등의 절차와 의미의 인지 정도는 연령이 높을수록, 불교 신자, 기혼자, 그리고 맏며느리인 경우에 더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제례에 대한 의식에 있어서 거주지역별, 종교, 성별, 연령, 결혼 여부, 학력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났다. 특히 종교가 불교일 경우 제례에 대한 의식이 긍정적이고 전통적인 제례방식을 지키고 전수해야 한다는 의식이 높게 나타났다. 이에 반해 기독교에서는 제사양식과는 다른 추도예배 형식으로 조상에 대한 예가 진행되는 경향으로 종교에 따른 형식면에서 차이가 있었다.

이상과 같이 제례 의식은 개인의 일반 환경과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이는 시대 변화에 의한 영향보다는 그 지역의 전통적 사고 의식과 자연환경에 따라 전통성과 보수

성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일반 환경요인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아 현대 사회 환경 변화에 따라 제례 의식도 서서히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V. 문헌

- An HS (1989) : Belief of stone age, ritual ideas and culture of home living. Seongshin University doctor degree of thesis.
- Chang EC (1995) : Research on the recognition, dietary habits and preference about the traditional foods - focus on the housewives of Seoul and Kyungki province - Hanyang University master degree of thesis.
- Heo SM (1987) : Study on the recognition on the rituals of housewives-focused on the Taeku area, Youngnam University master degree of thesis.
- <http://my.dreamwiz.com>, The story on the rituals of Choi BW.
- Kim HS, Hwang CS (1991) : Regional comparison on the ceremony of rituals. *Korean J Dietary Culture* 6(2): 91.
- Kim IO (1997) : Research on the present ritual ceremony and cultural review of traditional rituals. Seongshin University Doctor degree of thesis.
- Lee JK (1975) : A study on the Korean ritual ceremony. Kookmin University master degree of thesis 9th.
- Lee KP (1982) : Research on the Korean general idea of traditional ceremony focused on the wedding and ritual service, Koryo University Doctor degree of thesis.
- Lee KP (1975) : Report of the ritual ceremony of Lee Dynasty. Seongshin University thesis 8th.
- Lim OJ (1981) : Research on the recognition on the ritual ceremony of housewives, Research on the women of Asia 20th.
- Lee SE (1981) : study on the rituals of Youngnam Province. Kemung University master degree of thesis.
- Lee YM (1987) : Study on the awareness and ceremony of rituals. Seongshin University thesis 26th.
- Park KR (2000) : A study on the regional comparison of Korean ritual culture. Chungang University doctor degree of thesis.
- Park SC (1988) : A study on the recognition of ritual ceremony and the sense of house living of housewives in the city. Seongshin University master degree of thesis.

Song WK (1999) : Research on the rituals and ritual food of Kyungsangbukdo Province, Andong University master degree of thesis.

Yoon SS (1986) : Dietary life and worship of ancestor. *Korean Cultural Anthropology* 18: 183-199.

Yoon SK (1996) : Dietary culture for sacrificial rituals and foods in Andong area(I)- Bulchunwi sacrificial rituals and foods. *Korean J Dietary Culture* 11(2): 439-454.

(접수일: 2003년 3월 20일, 채택일: 2003년 5월 30일)